

“품위있는 노년으로 살자”

한마음과학원, 어르신 마음공부 ‘행복한 사계절’ 운영

노년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행복한 사계절’을 진행한다.

‘행복한 사계절’은 한마음과학원과 조계종 포교원이 노인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남녀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사바의 인연-소중한 만남 △감사하기-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의 보물창고 △미워도 다시 한번-용서와 화해 △내가 살던 고향은-동심을 찾아 △당신은 모르실거야, 내 마음! △타입인머신-소원을 말해봐 △마음 꽃을 피워요-변화하는 나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매회 명상을 하고 내면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증상시켜 가족, 친지 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은 교육시간 동안 음악, 율동, 미술, 조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활용할 예정이며, 매주 변화하는 자신을 위해 실천하고 싶은 것을 정해 일상에서 체험할 계획이다.

한마음과학원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지도하고 음악명상, 노래와 합창 등을 실시해 품위있는 노년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마음과학원은 6월 7일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행복한 사계절’ 입재식을 가졌다.

이날 입재식에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혜수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을 비롯해 어르신 36명이 참석했다.

이어나 기자



한마음과학원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공부프로그램 ‘행복한 사계절’을 진행한다. 7일 입재식에는 36명의 어르신이 참가했다.

북한산 절경 아래 맛보는 사찰음식의 진수

(사)문화나눔, 6월 22일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체험행사 개최

한국 산하의 빼어난 아름다움과 정갈한 사찰음식의 진수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행사가 열린다.

사단법인 문화나눔(이사장 권영구)은 6월 22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산 둘레길 트레킹과 진관사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의 부설법인인 문화나눔이 지난 4월 설립된 후 갖는 이번 첫 행사는 오후 1시에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에서 시작해 둘레길 트레킹을 마친 후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체험으로 이어진다.

북한산 둘레길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북한산 국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편안하고 아늑한 산책길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진관사는 조선 건국 초부터 국행수륙대제를 봉

행했을 정도로 사찰음식의 명소로 유래가 깊은 곳이다.

사단법인 문화나눔의 권영구 이사장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자연의 아름다움과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의 저변에 깃든 우수성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첫 행사를 통해 정기적인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문화나눔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부설법인으로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창립된 비영리 문화법인이다. 권 이사장은 “앞으로 차별화된 문화상품을 통해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스포츠로 사찰에 활력 불어 넣는다

축구·야구로 스포츠 포교하는 사찰들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놀이다. 그래서인지 스포츠만큼 구심력이 강한 문화컨텐츠도 없다. 4년마다 한번씩 지구촌을 달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열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스포츠는 남성들에게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고 함께 맘을 흘리며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더욱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여가를 보내려는 이들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몇몇 사찰들이 야구단·축구단을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회주 일편)는 2011년 ‘불암사 불일야구단’을 창립해 신도들의 신심 증진을 물론 친목 도모와 종교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20세 이상 남성으로 구성된 불암사 야구단에는 현재 50여명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인 야구리그인 남양주리그 하이트 조에 속해 본격적인 경기를 펼쳐오고 있으며, 창단 첫해에 4강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특히 불암사 야구단은 종교간 친선도모와 화합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과 올해 3월 ‘불자친선야구경기대회’를 열었다. 2회째 열린 올해 경기에는 울산 월봉사 사프니아야구단, 진각종 JGO 포티세브너스 야구단, 원불교 강남교당 원티드 야구단 등 모두 4개 팀이 출전해 친목을 다졌다.

일편 스님은 “불자들의 건강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불일야구단 감독을 맡은 최정기 감독(전 LG프로야구 선수), 불암사 신도들과 창단했다”며 “야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전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2회째 사회야구단과 친선경기를 하는 등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가운뎃 남성 여성에 비해 확연히



사찰에서는 야구·축구단을 조직해 불자들의 건강을 다지는 것은 물론 신심을 증진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석왕사 롬비니 어린이 야구단과 신흥사 아마추어 축구단인 ‘설호 축구단’.



불암사... 사회인 야구 리그 참여
신흥사... 지역 축구대회 꾸준히 출전
석왕사... 야구 꿈나무 육성 주력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방문객 늘여”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거사들의 발걸음을 사찰로 이끌기 위해 2010년 아마추어 축구단인 ‘설호 축구단’을 창단했다.

축구를 좋아하는 40세 이하 청년층 25명과 장년층 28명 등 재가 불자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설호축구단은 실업축구팀 선수 출신의 불자를 감독으로 영입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내 잔디구장을 임대해 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한 설호 축구단은 2010년 포교원장배 축구대회에서는 우승을, 만해축전 축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 밖에 강원도 지역과 불교계의 크고 작은 아마추어 경기에 꾸준히 출전해 팀워크를 다져왔다.

신흥사의 관심과 지원은 축구단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신흥사는 축구단 운영을 위해 30여 명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조직해 연간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 등 축구용품도 후원하고 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이 밖에 신흥사는 어린이법회에서 체육교실과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

게 됐다. 스포츠는 지역 사찰의 포교 역량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2013년 ‘롬비니 어린이야구단’을 창단하고 어린이 포교와 야구꿈나무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석왕사가 롬비니 어린이야구단을 창단한 것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왕사는 야구단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야구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종철 경기도원의 단장을 맡아 지역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프로야구 MBC 청룡 선수 출신인 최정기씨가 감독을 맡아 야구단을 지도하고 있다.

최자은 석왕사 사무국장은 “야구는 여타 스포츠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구를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롬비니 야구단은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가진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야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잠재적인 불자를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사찰 및 불교단체에서 스포츠 동호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평창 월정사는 국내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자들이 구성된 사회인 야구단인 ‘만월(滿月) 야구단’을 창단해 지역화

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울산 월봉사(주지 오삼)는 올해 초 ‘월봉사 사프니아 야구단’을 창단해 23명의 선수들이 매주 일요일 연습을 하면서 지역 아마추어 야구단과 교류경기를 하고 있으며, 30~50대 월봉사 신도 30여명으로 구성된 축구단도 창단해 스포츠 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진각종 포티세브너스 야구단은 2009년 결성돼 불교 포교와 친선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사회인들이 모여 2011년 창단한 축구회인 FC붓다는 불교계 업체, NGO, 언론매체, 신행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불자들로 구성돼 월 2회 이상의 자체 경기와 친선 경기를 치르며,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 밖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축구모임 사자후, 봉은사·불광사 연합팀도 축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는 사찰들은 불교포교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최상균 불암사 신도회장은 “불암사 야구단을 창단한 후부터 남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불암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야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 연인, 가족들도 덩달아 사찰을 찾아가기 때문에 야구단 창단이 불교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런 긍정적 효과를 계기로 불암사는 리틀 야구단 창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종교와 인문학의 만남으로 오세요

화쟁아카데미 · 시민행성, 6월 여름 정기 강좌 개강

불교지식의 인문화를 추구하는 화쟁아카데미와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이 ‘같은 크기의 창을 들고, 대화’를 주제로 여름학기 정기 강좌를 시작한다.

이번 강좌엔 조선택, 김진호, 이형대, 진태원, 이원 등 종교계와 인문학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학자, 문화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강좌는 △종교 △고전 · 인문학 △예술을 테마로 총 8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종교 분야에는 조선택 고려대 교수가 우리 시대 불교의 선 자리와 갈 길을 새롭게 가능해보는 ‘21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을,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실장이

바울의 재해석을 통해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떻게 현실의 문제에 응대해야 하는가를 다룬 ‘리부팅 바울 - 권리 없는 자들의 신학을 위하여’를 6차례에 걸쳐 강의한다.

고전 · 인문학 분야에는 박수밀 한양대 교수가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다. 최고의 고전 <열하일기>’를, 이형대 고려대 교수 등이 ‘세상의 바깥에서 연대하라, 고전시대의 이웃사이어들’ 강좌

를 진행한다. 이밖에 진태원 고려대 교수가 ‘지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론’을, 최희근 고려대교수 등이 ‘인문학, 도래할 시민법을 상상하다’를 8차례에 걸쳐 강의한다.

예술분야에는 <불가능한 종의 역사>의 시집을 펴낸 이원 시인이 ‘내 마음 만들기 프로젝트 - 심장이 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와 ‘부도스쿨 - 캥거루 버스’ 강좌를 각각 6차례에 걸쳐 강의한다. 이어나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7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쇧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창,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6월 30일 까지

◆개강일시 :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개강일시 : 2014년 7월 7일 (매주 일)◀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마이크에서 소리를 직접 조절하는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와트 1대 · 최고급 범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세트 · 사저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 1대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를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자, 무선설비기사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